

전북, 누리과정 예산부족 242억 연체

6월까지 카드사 대납 연체 보육료로... 지급 주체로 지자체 명시돼 향후 논란 예상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전북의 카드사 대납 연체 보육료가 지난 6월까지 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카드사 간 계약 내용에는 대납액 지급 주체로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시·도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납 현황' 자료를 보면, 전북의 경우 242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는 상태다.

시·도 별로 경기도(1,211억원)가 카드사 대납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377억원), 전북의 순이다.

이어 서울(228억원), 강원(217억원), 광주(209억원), 전남(102억원), 경남(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만 집계한 금액은 전국적으로 2,637억원으로, 7월·8월까지 합하면 대납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대납하게 된 것은 독특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체계 때문이다.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교육비를 해당 달에 바로 지급받지만, 어린이집은 중간에 카드사를 끼고 보육료 지원이 이뤄진다.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먼저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우선 결제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선지급한 뒤 지자체가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 한달 뒤에 이를 갚는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선지급하고도 지자체로부터 못받은



새만금 잼버리 실시 둘째날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와 관련해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실시 둘째날인 17일 요란 헤이게달, 스티븐 펙 실사단이 이형규 정무부지사와 김중규 부인군수와 함께 아영장 내 위험지역 및 공공시설 등 대회를 위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금액이 2637억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사실상의 연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하반기 미편성된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액수를 토대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이 1조1,000억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카드사 대납액 2,637억원을 합하면 실제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은 1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카드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 어디에도 대납액을 지급할 주체로 교육청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

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KB카드콘소시엄과 맺은 계약을 보면 '대금의 정산' 항목에서 "발주처(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보육료 예약금을 매월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금 정산의 주체에서 교육청은 배제돼 있는 상황으로 교육청의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카드사 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

지는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보육료 지원 체계를 보면 법적 강제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증가한 교부금(1조9,000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이 부채상환 등에 추가 교부금을 사용하면 2,637억원의 대납액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예산 부족액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형 기자

했다. 또한, 건축된 지 35년이 지난 전주역사는 주차장과 대합실 등 시설이 매우 협소해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관광객들에게 극심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선상역사 건립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서 지역현안 사업으로 탄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도 건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대구에서 개최된 한국잼버리대회에서도 말했듯이 새만금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지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형 기자

청와대서 '한옥마을 창조경제 성공사례' 발표

송하진 도지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패스라인 모바일환경 구축 등 현안 건의도

송하진 도지사는 1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전주한옥마을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도정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지역발전위원장, 행정자치부차관, 관련 수석 등이 참석, 전북을 포함한 4개 시도의 창조관광 우수

사례 발표와 시도별 공통 현안 및 지원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송 지사는 전주한옥마을이 창조관광 우수사례로 선정돼 한옥마을 조성경위와 성공요인, 주요성과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상하게 소개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게 되기까지 한옥보존조례 제정과 주민들과의 소통사례, 전선 지중화 및 실개천 조성 등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벽화마을 조성과정과 전통시장 내 청년몰, 야시장 개설 등 청년 창조공간이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한옥마을의 성공을 계기로 시범사업을 거쳐 도내 전역으로 확대 예정인 전북투어패스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비전, 와이파

이 등 모바일 환경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전주한옥마을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게 되기까지 한옥보존조례 제정과 주민들과의 소통사례, 전선 지중화 및 실개천 조성 등 인프라

'전북과학축전' 체험중심 구성

26일~28일 '상상이 현실이되다' 주제 도청사 일원서

전북도가 교육청과 함께 '제11회 전북 과학축전'을 체험형 중심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과학축전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상상이 현실이되다'라는 주제로 전북도청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행사장 입장에서 퇴장까지 다양한 과학체험과 환상적인 융합형 컨텐츠 체험을 제공해 관람객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상상의 장을 제공하는 행사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도는 이번 과학축전 준비를 위해 지난 7월부터 TPT를 구성, 도청에 축전 사무국을 본격적으로 가동 중에 있다

개막식은 오는 26일 전북도청 공연장 3층에서 도내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민들이 과학과 소통·상상·융합하는 제11회 전북과학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20개 프로그램에서 130개 프로그램으로 확

대하고, 정부 및 전북도출연연구기관 등 52개 단체와 40개 학교(초·중·고) 등 총 115개 기관·단체·학교가 참여, 모든 세대가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축전 컨셉은 크게 소통공간, 상상공간, 융합공간으로 구성, 과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식·특별행사, 기초과학에서 첨단과학기술까지 다채로운 과학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관람객의 호기심을 해결하고 과학 상상력을 높이는 경연대회 등이 운영된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아의 부스간 차광막 설치", "다수의 냉수기 설치" 등 최선의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과학축전은 급변하는 첨단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체험하고, 미래과학을 조망하는 의미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오늘 개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일까지... 1300여명 참석 예정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2016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가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심리학회 석학 및 심리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학술정보 교류와 친목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1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심리학회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선두적인 학회로 70년의 역사와 1만60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매년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해 회원들 간의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심리학을 소개하고 있다.

대회 1일차에는 '대한민국 청년의 삶과 미래'라는 주제로 법정에서 바라본 우리 청년의 삶과 미래 (박종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청년 고용과 능력중심사회'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청년 일자리와 사회인식의 변화' (신용환, 현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생애발달에 따른 한국 청년정책의 재조명' (노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과 '청년의 삶과 고용, 그리고 미래' (유길

상, 한국고용정보원장)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를 통해 정책적·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청년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투지·열정의 심리학적 특성을 가정, 학교, 사회에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이훈구 이사의 발표와 다양한 주제감이 요구되는 시대의 청년'에 대해 고려대 심리학과 한성열 교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일차에는 한국, 중국, 일본 심리학회 공동으로 'Life and Future of the Young Generation'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각 분과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 및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3일차에는 한국의 정치, IRB 운영, 질적연구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 및 워크숍과 회원들의 개인 연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오는 9월에도 UCLG아태지부 총회와 플라즈마 국제 학술대회 등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제10회 전국장애인가요제 안내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매년 장애인 가요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① 참가자 신청 : 등록 장애인 누구나 (16세이상)
- ② 신청방법 : 대중가요 1곡 선정하여 전화, 방문 팩스로 신청가능 (8월 31일까지)
- ③ 참고 : 도민누구나 관람가능. 행운권 추첨하여 상품 증정함

- * 일시 : 2016년 9월 3일 (토) 오후 4시 30분
- * 장소 :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 (남부시장 입구)
- * 주최 : 전북장애인 복지문제연구소
- * 후원 : 전라북도, 한국연예인협회 전북지부, 전북장애인 신문사



대회본부장: 김양욱



MC: 최현아(가수 겸 MC)

전북 장애인 복지문제 연구소

T. 286-6678 F. 287-6678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